

김규성 “타격폼 바꿔 타율 업그레이드”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에서 내야 평고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김규성.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핫 플레이어

날렵한 움직임... 호수비 '무기'
지난해 김선빈·류지혁 공백 메꿔 타율 0.178... 타격은 아쉬움
맷 감독, 타격 폼부터 특별 지도
“준비 끝... 타율 2할대 중반 도전”

“준비 잘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타격 업그레이드 중인 KIA 타이거즈의 김규성(24)이 올 시즌 내야의 ‘다크호스’를 예고했다. 지난해 팀의 위기는 김규성에게 기회가 됐다. 2017년 입단해 한 시즌을 보내고 바로 현역으로 입대했던 김규성은 ‘예비역’으로 지난해 복귀 시즌을 맞았다. 그리고 김선빈과 류지혁의 부상 속에 기회를 얻었다. 김규성은 5월 16일 처음 1군에 콜업 돼 다음날 두산전에서 김선빈의 대주자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내야 부상 속 시즌 마지막 날까지 엔트리를 지키면서 잊지 못할 시즌을 보냈다. 날렵한 움직임으로 눈길을 끈 김규성은 수비에서는 스스로 좋은 점수를 찾았다. 김규성은 “지난해 수비에서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1군에서 첫 시즌이다 보니까 나도 많이

놀랐고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수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병들이 복귀한 올 시즌에도 수비가 김규성의 가장 큰 무기다. 김규성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더 노력하고 있다. 수비에서 자신감이 있다. 수비할 때 좋은 바운드에서 처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중학교 때부터 수비 코치님께서 연습 시켜주셨다”며 “내야 포지션은 다 자신 있다. 아무래도 2루는 (1루 베이스와) 거리도 가깝고 더 여유 있어서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비는 인정받은 김규성이지만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타율이 182타수 28안타, 0.178에 그쳤다. 연습경기에서 뜨거웠던 타격감을 본무대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김규성은 윌리엄스 감독과 타격폼을 수정하고 있다. 김규성은 “연습경기는 긴장감도 덜하고 그랬는데 시즌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도 되고 소심해지고 그랬던 것 같다”며 “지금 타격할 때 손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 손의 탑 위치가 낮다 보니까 빗맞는 게 많고, 내 타이밍에 맞아도 파울되는 게 많았다”고 말했다. 김규성은 지난 21일에는 윌리엄스 감독의 ‘특별 지도’를 받았다. 김규성은 “(지난해 만루홈런을 쳤을 때) 임팩트에 제대로 맞아서 넘어갔다. 당시는 손 위치 생각

안 하고 공 맞는 것만 신경 썼는데 지금 팔 위치까지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며 “칠 때 준비 자세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망설임이 있었는데 올해는 탑 위치를 고정하면서 연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다. 타구가 힘있게 날아가고 잘 맞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우도 김규성의 타격에 힘을 더해줬다. 지난 1월 최형우와 전주에서 같이 훈련을 한 김규성은 “형우 선배님이 왜 잘 치는 지 느낌이 왔다. 선배님 치는 것 보고 이야기하면서 배운 것도 많다”며 “특히 앞에 어깨가 열리면 안 된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다. 작년에 변화구에 대처가 안 됐는데 듣고 하다 보니까 변화구에 덜 속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자신감 있게 그라운드에 오르는 게 김규성의 2021시즌 목표 중 하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상 없는 시즌이다. 지난 시즌 부상 속에서 기회를 얻었던 만큼 ‘부상’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김규성은 “올해 목표가 안 다치고 하는 것이다. 지난 시즌을 경험하면서 부상 안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다”며 “작년 캠프할 때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느낀 것도 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시즌 들어가서 결과가 준비 잘했나 아니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멘탈과 방망이가 중요하다. 2할 중반까지 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보여줄게, 확실히 달라진 실력”



K리그1 12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미디어데이가 22일 22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SK 와이번스’ 역사 속으로

신세계 이마트, 오늘 인수 본계약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구단 지분 100%를 가진 SK텔레콤은 23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구단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1일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보도자료와 공시로 계약 체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약이 체결되면 구단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은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완전히 퇴장한다. SK 와이번스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만, 선수단

은 당분간 SK 유니폼을 입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캠프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시즌 이벤트용으로 입었던 ‘인천 유니폼’을 임시 유니폼으로 착용하기로 했다. 영문으로 인천(INCHEON)이 상의에 새겨져 있는 흰색 유니폼이다. SK 엠블럼은 신세계 이마트 엠블럼으로 교체한다. 신세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신세계 측 관계자는 “현재 팀명과 유니폼 디자인, CI(Corporate Identity)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으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류현진, 지난 시즌보다 좋다”

토론토 피트 워커 투수코치 인터뷰... 다음달 1일부터 시범경기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피트 워커 투수코치가 동계 훈련에서 착실히 페이스를 끌어올린 1선발 류현진(34)에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워커 투수코치는 22일 취재진과 한 영상 인터뷰에서 “작년 이맘때보다 컨디션이 더욱 좋아 보인다”며 “동계 훈련에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토론토 스프링캠프 첫해인) 작년 보다 류현진이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며 “볼펜에서 공을 50개나 던질 만큼 투구 페이스를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귀국한 류현진은 한 달 정도 쉬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을 대비했다. /연합뉴스

체력과 근력 훈련 위주로 몸을 다시 깨운 류현진은 올해 1월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2주 동안 70m 거리에서 캐치볼을 했고, 가벼운 투구 훈련도 했다.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원래 일정으로 돌아온 점을 고려해 류현진은 출국 마지막까지 체력을 더욱 길렀고, 2월 3일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도착해 곧바로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있는 팀의 스프링캠프 시설로 이동해 시범경기를 대비한 실전 투구 모드에 들어갔다. 18일 투·포수 연습을 시작으로 스프링캠프의 문을 연 토론토는 3월 1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28차례 시범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K리그 온라인 미디어데이... 김호영 감독·엄원상 선수 시즌 각오

“강등 1순위? 광주의 실력을 증명하겠다!” 광주FC의 김호영 감독과 ‘토종 에이스’ 엄원상이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하나원큐 K리그1 2021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올 시즌 각오를 밝혔다. 올 시즌 고향팀 지휘봉을 잡은 김호영 감독은 “동계훈련하시느라 감독, 선수님들 수고 많으셨다”며 “개막하기도 전에 많은 분이 광주가 강등 1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덕분에 각오가 새롭다. 경기장에서 광주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즌, 작년보다 더 높은 마무리와 좋은 열매를 맺는 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많은 것이 바뀐 2021시즌이다. 부임 이후 바꾼 부분에 대해 김 감독은 “많은 선수가 이적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구성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며 “두 번째는 분위기 전환이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분위기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했다. 행복한, 분위기가

좋은 축구로 바뀌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수원삼성과 개막전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시즌 광주의 막강 삼각편대를 구성했던 윌리엄스 감독이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고, 펠리페는 재활 중이다. 하지만 김 감독은 팀워크를 이야기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엄원상과 프로데뷔를 준비하는 엄지성 등 ‘금고고 엄두우’에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선수 개인보다는 팀 전원에 기대하고, 팬에게 기대한다. 팬들이 정말 많은 힘을 줄 것이다”며 “선수를 굳이 꼽자면 옆에 있는 엄원상 선수를 기대하고, 한 명을 더 하자면 유스에서 올라온 엄지성 선수도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고 언급했다. 금고고 출신인 엄원상은 프로 두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해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광주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7골 2도움을 기록한 팀의 대들보다. 역시 금고고를 졸업한 ‘루기’ 엄지성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득점왕, K리그 U18 챔피언십 득점왕, 2020 K리그 주니어 B조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를 휩쓴 기대주이다. 2학년이었던 2019년에는 FIFA U-17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고, 전국 고등학교 왕중왕전 4강전에서 ‘손흥민의 원더풀’과 똑 닮은 약 80m 질주의 골도 장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로운 사령탑과 새 시즌을 앞둔 엄원상은 “대표팀에서 나와 팀 훈련에 다시 합류했을 때 선수들의 얼굴이 많이 환해져 있었다”며 “운동장에서 편하게 해주시고, 많은 걸 알려주신다. 많은 선수의 표정이 밝고, 분위기는 좋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마지막 영플레이어상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엄원상은 “작년 팀 전체가 좋은 모습으로 파이널 진출을 했기에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그게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올해는 감독님 밑에서 더 많이 배워서 반드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